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1, Vol. 33, No. 4, 1715-1737

형제자매의 장애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화 유형과 거부민감성 및 우울과의 관계

최 현 주†

울산대학교 / 부교수

본 연구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화의 세 가지 하위요인(도구적 돌봄, 정서적 돌봄, 불공정성)으로 구성되는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하고, 형제자매의 장애 유무에 따라 잠재프로파일 유형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형제자매의 장애 유무와 부모화 유형이 거부민감성과 우울 수준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청소년(비장애 형제자매) 130명과, 비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청소년(일반 형제자매) 149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부모화의 잠재프로파일은 4개로 분류되었으며, 부모화의 세 하위요인이 모두 낮은 '저-부모화', 세 하위요인이 모두 중간 수준인 '중-부모화', 도구적 돌봄과 정서적 돌봄이 높은 '고-부모화Ⅰ: 도구-정서형', 세 하위요인이 모두 높은 '고-부모화Ⅱ: 역기능형'으로 명명되었다. 이들 중 '고-부모화Ⅰ: 도구-정서형'과 '고-부모화Ⅱ: 역기능형'에는 비장애 형제자매의 소속 비율이 높았다. 또한, 형제자매의 장애 유무와 부모화 유형은 상호작용하며 거부민감성과 우울 수준에 영향을 주었다. 즉, '고-부모화Ⅰ: 도구-정서형'과 '고-부모화Ⅱ: 역기능형'의 경우, 비장애 형제자매 집단의 거부민감성과 우울 수준이 일반 형제자매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장애인 형제자매, 비장애 형제자매, 부모화, 거부민감성, 우울, 잠재프로파일

† 교신저자 : 최현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44610)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Tel : 052-259-2408, E-mail : serenhj@ulsan.ac.kr

www.kci.go.kr

가족은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속되는 사회 집단으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핵심적인 영향을 준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족 내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의 질병 및 장애는 가족체계에 불균형을 불러와 건강한 상호작용을 방해하고, 가족의 정서적 기능을 저하시킨다(석말숙, 2013; 정수인, 오인수, 2014). 더욱이 장애인을 형제, 자매로 둔 비장애인 청소년(이하 비장애 형제자매)들은 심리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 이들은 장애 형제자매에 비해 부모의 관심과 돌봄을 덜 받는 경향이 있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된다(석말숙, 2013). 장애가 있는 형제, 자매에 비해 부모의 기대가 과도하거나 양육태도에 있어 엄격함이 강조되어 지나친 부담과 책임을 느끼기도 한다(이영미, 2016). 실제로 비장애 형제자매는 가족 안에서 할 일이 많다. 부모를 도와 크고 작은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위로하거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이러한 경험은 타인을 잘 살피는 성숙함이나 환경 대처 유연성과 같은 긍정적 성격발달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자칫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압하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심리적 부적응을 심화시킬 수 있다(손주희, 박주희, 2019). 이외에도 비장애 형제자매들은 장애 형제자매의 돌발 행동에 대한 당혹감, 부모 사후에 장애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것에 대한 걱정, 자신도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에 시달리며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양호정, 2014), 그 결과 우울 등 정신건강에도 취약할 수 있다(조민경, 강영심, 손성화, 2019).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도와 장애 형제자매를 지원할 뿐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는 부모보다 더 긴 시간을 장애 형제자매와 살아가며 제 2의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비장애 형제자매들이 청소년 시기부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심리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비장애 형제자매가 처한 특수한 상황은 부모화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부모화(parentification)란 어린 자녀가 부모 역할의 일부분을 담당하며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역할 역전 현상을 뜻한다(Jurkovic et al., 2004). 자녀가 발달 과정에서 부모 역할을 배워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나이에 비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랜 기간 부모 역할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는 경우 부모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Boszormenyi-Nagy & Spark, 1973). 이러한 현상은 부모-자녀 역할의 경계가 모호하고 감정적 융합이 강할 때 보다 빈번하게 나타나며, 부모가 알코올, 약물 등 중독 문제를 겪거나 질병, 극심한 빈곤 등으로 자녀에게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할 때 나타나기 쉽다. 국내에서는 다문화 가정(예: 김병건, 김현아, 2020; 이지선, 김정민, 2019)과 장애인이 있는 가족(예: 안다혜, 정주리, 2021; 정수인, 오인수, 2014)을 중심으로 부모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흥미로운 것은 부모화가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부모화된 자녀는 부모나 형제 등 가족 구성원들을 부모처럼 돌보거나 의사결정자처럼 행동한다. 이 과정에서 또래에 비해 다양한 성공 경험을 하거나, 사회적 기술을 기를 수 있어 자존감과 자기효능감도 높아질 수 있다(Barnett & Parker, 1998; Jurkovic, 1997). 반면 대인관계에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고,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불

www.kci.go.kr

안해하며, 심각한 경우 스스로의 욕구를 주장하거나 충족시키는 것에 죄의식을 가질 수도 있다(신말숙, 심혜원, 2017). 후자와 같은 역기능적 부모화는 성격형성 과정에까지 영향을 주어, 과잉통제, 자기학대적 성향, 내현적 자기애 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다(강선모, 임혜경, 2012; Jurkovic, 1997; Wells & Johnes, 1998).

이처럼 부모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나누어지는 것은 부모화 유형과 관련될 수 있다. 부모화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Jurkovic(1997)은 역할의 난이도 및 수행 기간 등에 따라 파괴적 부모화, 적응적 부모화, 비부모화(건강한 비부모화, 유아화)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파괴적 부모화란 자녀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장기간 가족을 돕는 것을, 적응적 부모화는 적절한 수준에서 일시적으로 일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비부모화는 부모화가 되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다시 건강한 비부모화와 자녀의 욕구 충족에 충실한 유아화로 나누어진다. 적응적 부모화는 한정된 범위에서 역할 역전을 허용하며 자녀의 조력을 충분히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성취감을 느끼며 부모 역할을 안전하게 연습하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파괴적 부모화는 발달 단계 상 필요한 행동을 억제하도록 조장하면서 불공정한 관계 양상을 지속시켜 성격, 또래 관계, 사회인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Jurkovic, 1998).

한편, 부모화 유형은 수행하는 역할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도구적) 부모화와 정서적(표현적) 부모화로 분류되기도 한다(Jurkovic, 1997). 물리적(도구적) 부모화란 장보기, 병간호하기, 돈 벌어오기 등 기능적으로 집안일을 수행하는 것을, 정서적(표현적) 부모화란 가족 구성원 간 관계갈등 중재하기, 지지와 위안 제공하기 등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뜻한다. 일부에서는 도구적 부모 역할이 정서적 부모화에 비해 덜 파괴적이라는 주장도 있다(Boszormenyi-Nagy & Spark, 1973). 그러나 Jurkovic(1997)은 현실에서 도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화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둘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던지 자녀가 그것을 공정하다고 지각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부모화의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유형 분류를 시도한 바 있다. 대학생 171명을 대상으로 한 이혜영, 최연실(2016)의 연구에서는 부모화 유형을 도구-불공평형, 정서-불공평형, 도구-정서형으로 분류하였다. 도구-불공평형은 도구적 부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불공평을 크게 지각하는 집단, 정서-불공평형은 정서적 부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불공평을 크게 지각하는 집단, 도구-정서형은 도구적 역할과 정서적 역할을 혼합하여 수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불공평은 낮게 지각하는 집단을 뜻한다. 한편, 청소년 252명을 대상으로 한 송현지, 이소연(2020)의 연구에서는 부모화 유형을 높은 부모화형, 물리・불공평형, 물리・정서형, 정서・불공평형, 낮은 부모화형의 5개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부모화 유형을 3개 군집으로 분류했던 이혜영, 최연실(2016) 연구에서 2개 유형이 새롭게 도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추가된 유형은 물리적(도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이 모두 높은 '높은 부모화형'과 물리적(도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이 모두 낮은 '낮은 부모화형'이다. 송현지, 이소연(2020) 연구에 따르면 높은 부모화형, 물리・불공평형,

www.kci.go.kr

정서·불공평형은 나머지 두 유형에 비해 우울이 높으며, 물리·정서형은 물리·불공평형에 비해 정서적, 사회적 안녕감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요 역할이 물리적이던 정서적이던 불공평을 높게 인식하는 부모화가 정신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비장애 형제자매들은 부모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불공정성을 높게 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비장애 형제자매는 장애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에 있어, 장애 형제자매와 비대칭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Stoneman, Brody, Davis, & Crapps, 1988). 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부모를 따라 장애 형제자매를 돌보게 되는데, 유사시에는 부모 역할을 대신하도록 명시적인 요구를 받기도 한다(오수경, 장숙, 2012). 또한, 장애 형제자매가 충족시키지 못한 기대가 비장애 형제자매에게로 집중되다보니 부모를 거역하거나 실망시키는 일을 주저하게 된다(이영미, 2016).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범위까지 가족을 도우려 하고, 힘들거나 섭섭한 감정이 있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들의 과부하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부정적 감정과 스트레스는 억울함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 결국 비장애 형제자매는 일반 형제자매에 비해 부모화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더 많이 경험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비장애 형재자매의 부모화를 다룬 연구들은(예: 손주희, 박주희, 2019; 안다혜, 정주리, 2021)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비장애 형재자매의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일반 청소년과의 비교를 실시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혹은 파괴적인 부모화 유형이 일반 청소년보다 비장애 형제자매 청소년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편, 비장애 형제자매의 부모화 경험은 이들의 거부민감성을 높일 수 있다. 거부민감성이란 거절 단서에 대한 과잉민감성으로 생애 초기 주양육자로부터 거부되었던 경험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Downey & Feldman, 1996). Downey와 그의 동료들에 따르면 중요한 대상으로부터 수용되는가, 거부되는가는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 뇌에는 이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하게 만드는 방어 동기 체계(Defensive Motivational System: DMS)가 갖추어져 있다(Downey, Mougios, Ayduk, London, & Shoda, 2004).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사소하고 모호한 거절의 신호조차 거부로 지각하기 때문에 DMS가 쉽게 활성화되며, 그 결과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 정서에 자주 노출된다. 선행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안을 크게 느끼며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우울에 취약했다(Ayduk, Gyurak, & Luerssen, 2009). 또한,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자신이 항상 거부되는 사람이라는 비관적인 자기충족적 예언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Pietrzak, Downey, & Ayduk, 2005). 이는 이후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반응 양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비장애 형제자매의 거부민감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부모화와 거부민감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이들 간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김나연의 연구에서(2021) 부모화와 거부민감성 간 정적 상관

www.kci.go.kr

이 확인되었으며, 성인 초기 비장애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한 손주희, 박주희(2019)의 연구에서 역시 부모화와 거부민감성 간 정적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아동기부터 부모-자녀 역할이 역전되는 경우, 자녀의 양육 받고자 하는 욕구는 지속적으로 좌절되고 이는 거절에 대한 예민성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제자매의 장애 여부와 부모화 유형이 거부민감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비장애 형제자매의 부모화 경험은 우울과도 관련될 수 있다. 캐나다에서 발달 장애인의 형제자매 약 1만 명의 건강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장애가 없는 형제자매를 둔 집단에 비해 우울로 진단되는 확률이 높았다(Marquis, McGrail, & Hayes, 2019). 비장애 형제자매의 우울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은 이들이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장애 형제자매로 인해 우울, 불안, 분노 등이 느껴져도 이를 내색하지 않고 혼자 속을 끓이거나 참는 모습을 보인다(김다혜, 한재희, 2016).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장애 형제자매를 자신이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지만, 이를 주변에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더불어 그러한 생각을 하는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양호정, 2014). 비장애 형제자매들의 부모화 역시 우울을 유발할 수 있다. 부모화로 인한 우울은 어린 시절에는 잠재되어 있다가 전환기인 청소년기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Teyber, 2006). 유, 아동기에 부모화된 자녀는 유능하고 적응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스스로도 심리적 고통에 대해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가 원가족과 분화하여 자아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청소년 시기가 되면 그동안 누적되었던 심리적 고통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우울감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청소년기 우울은 성인기 우울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이며(Korczak & Goldstein, 2009),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제자매의 장애 여부와 부모화 유형이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비장애 형제자매들은 부모를 도와 장애 형제자매를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어 부모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화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더 많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거절 신호를 민감하게 지각하는 거부민감성이나 우울 수준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비장애 형제자매의 부모화, 거부민감성, 우울 등을 다룬 선행연구는 있었으나 청소년 대상에 집중하거나, 장애 형제자매가 없는 청소년 집단과 비교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화 유형을 분류하고 이것이 형제자매의 장애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형제자매의 장애 여부와 부모화 유형이 거부민감성과 우울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나타난 청소년의 부모화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화 유형의 분포는 형제자매의 장애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3. 형제자매의 장애 유무와 부모화 유형은 청소년의 거부민감성과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www.kci.go.kr

방 법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장애가 있는 형제, 자매를 둔 청소년(비장애 형제자매) 집단과 비장애인 형제, 자매를 둔 청소년(일반 형제자매) 집단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비장애 형제자매 150명을 편의표집하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보호자와 연구대상에게 연구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설문이 진행되었다. 일반 형제자매 집단의 경우, 비장애 형제자매 집단과 성별, 연령, 지역 분포가 유사하도록 150명을 편의표집하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일반 형제자매 집단은 문서로 연구 안내문이 배포되었고, 보호자와 연구대상의 참여 동의를 받은 후 설문이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 무응답과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하여 비장애 형제자매 130명, 일반 형제자매 149명으로 총 279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성별, 연령, 지역 분포는 표 1과 같다.

측정 도구

부모화

부모화는 Jurkovic, Kuperminc, Casey(2000)의 Filial Responsibility Scale-Youth(FRS-Y)를 국내 연구자들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로 측정하였다(김은영, 2009; 이정숙, 김은경, 2007). FRS-Y는 도구적 돌봄(12문항, 예: 나는 종종 내 형제들의 숙제를 도와준다), 정서적 돌봄(9문항, 예: 때때로 엄마나 아빠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라고 느낀다), 공정성(13문항, 예: 가족들에게 내 감정은 중요시되지 않는 것 같다)의 세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성은 역채점하여 불공정성으로 점수화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전체 34개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FRS-Y의 타당도를 검증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본 연구자료로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CFI=.81, TLI=.86, RMSEA=.09).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76~.84로 보고되었으며(구경호, 유순화, 2012; 김은영, 2009), 본 연구는 .87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변수	구분	비장애 형제자매 (130명)	일반 형제자매 (149명)	계 (279명)
성별	남	62 (47.8%)	69 (46.3%)	131 (47%)
	여	68 (52.3%)	80 (53.7%)	148 (53%)
연령	13~15세	76 (58.5%)	89 (59.7%)	165 (59.1%)
	16세~18세	54 (41.5%)	60 (40.3%)	114 (40.9%)
지역	서울/경기	45 (34.6%)	55 (36.9%)	100 (35.8%)
	부산/울산/경남	85 (65.4%)	94 (63.0%)	179 (64.2%)

www.kci.go.kr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은 Downey와 Feldman(1996)의 The 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CRSQ)를 박지윤(2004)이 국내 실정에 맞게 타당화한 한국판 아동용 거부민감성 척도(Korean 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K-CRSQ)로 측정하였다. K-CRSQ는 또래 및 교사와 관련된 12개 거부 상황에 대해 거부예기정서(불안, 분노, 우울)와 거부예상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아주 많이 그렇다(6점)'의 6점 Likert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거부민감성은 거부예기정서와 거부예상정도의 곱으로 산출되며, 최소 1점에서 최대 36점 범위에서 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거부 상황의 예로는 "오후에 친구랑 집에 가려고 약속했다. 수업이 끝나고 화장실이 급해 다녀오니 한참을 기다려도 친구가 보이질 않는다. 나는 두리번거리며 친구를 찾아보면서 '친구가 먼저 가버린 걸까?' 궁금해진다."가 있고, 이에 대한 거부예기정서(불안) 문항으로는 "친구가 먼저 가버린 걸까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불안하다."가, 거부예상정도 문항은 "친구가 먼저 가버렸을까?"가 제시된다. 박지윤(2004)의 연구에서 K-CRSQ의 구인타당도와 내적합치도는 모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K-CRSQ를 중, 고등학생 집단에서 사용한 국내 연구들(박춘엽, 하문선, 2020; 장진이, 곽노은, 이지연, 2016; 정은숙, 2021)에서도 내적합치도가 .95~.97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95로 높게 나타났다.

우울

우울은 Kovacs(1985)의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를 김은경, 양재원, 정유숙, 홍성도, 김지혜(2005)가 타당화한 한국판 소아 우울 척도(Korean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K-CDI)로 측정하였다. K-CDI는 아동 및 청소년(8~17세)을 위한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주일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3단계(0점, 1점, 2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예: 나는 가끔 슬프다[0점], 나는 자주 슬프다[1점], 나는 항상 슬프다[2점]). 청소년 집단에서 K-CDI의 하위요인은 부정적 기분 및 신체적 증상(예: 나는 항상 슬프다), 비효율성(예: 나는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대인관계 문제(예: 나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 외현화 문제(예: 나는 사람들과 언제나 싸운다)로 나누어지며,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은경 등(2005)의 연구에서 K-CDI의 타당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되었고(CFI=.88, TLI=.87, RMSEA=.05), 내적 합치도 역시 .85~.87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역시 .84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부모화의 하위 유형을 분류하고(연구문제 1), 장애인 형제자매 유무에 따라 부모화 하위 유형의 분포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연구문제 2). 또한, 장애인 형제자매 유무와 부모화 하위 유형에 따라 거부민감성 및 우울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연구문제 3). 연구문제 1은 *Mplus* 7.4를 사용한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통해 알아보았다. LPA 분석의 프로파일 구성요인은 (도구적 돌봄, 정서적 돌봄, 불공정성) Z점수

www.kci.go.kr

로 표준화하여 투입되었다. 잠재프로파일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87),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z, 1978), SSABIC (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love, 1987)를 참고하였다. AIC, BIC, SSABIC는 작을수록 좋은 모형임을 뜻한다 (Muthén, 2004). 이에 더해 잠재프로파일 개수를 증가시켜가면서 통계적 유의성으로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는 LMR(Lo-Mendell Rubin likelihood ratio test; Lo, Mendell, & Rubin, 2001),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McLachlan & Peel, 2000)가 고려되었다. LMR과 BLRT는 p>.05일 때, 해당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Entropy 지수를 참고하였다. Entropy는 1에 가까울수록 적합한 모형임을 의미하며, 0.8 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해석된다(Wang & Wang, 2012). 한편, 적합도 지수들의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프로파일의 해석 가능성 및 프로파일 별 소속 비율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Berlin, Williams, & Parra, 2014). 선행연구의 권고에 따라, 분류된 잠재프로파일이 다른 프로파일과 분명히 구별되는지, 어느 한 집단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작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였다(Lanza, Collins, Lemmon, & Schafer, 2007). 연구문제 2는 카이제곱 검정, 연구문제 3은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결 과

상관 및 기술통계

연구문제를 검증하기에 앞서 연구의 주요 변수인 부모화 하위요인(도구적 돌봄, 정서적 돌봄, 불공정성), 거부민감성, 우울 간 상관계수와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표 2). 비장애 형제자매와 일반 형제자매를 통합한 전체 집단(N=279)에서 도구적 돌봄은 정서적 돌봄(r=.64, p<.001), 불공정성(r=.62, p<.001)과 높은 정적 상관을, 정서적 돌봄은 불공정성(r=.62, p<.001)과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도구적 돌봄은 거부민감성(r=.11, p>.05)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우울(r=.12, p<.05)과는 약한 상관을 보였다. 정서적 돌봄과 거부민감성(r=.15, p<.05) 사이에는 약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우울(r=.09, p>.05)과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불공정성의 경우, 거부민감성(r=.28, p<.001) 및 우울(r=.31, p<.001)과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거부민감성과 우울 간에는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r=.51, p<.001)이 있었다.

평균의 경우, 부모화의 세 하위요인은 이론적으로 1~4점에 분포할 수 있는데 1.72~1.98점으로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거부민감성은 1~36점에 분포할 수 있는데 5.58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우울은 0~2점에 분포할 수 있는데 0.53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모든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는 절댓값 2를 넘지 않아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West, Finch, & Curran, 1995).

본 연구는 비장애 형제자매와 일반 형제자매의 집단 차이 확인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관 및 기술통계 역시 집단 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도구적 돌봄, 정서적 돌봄, 불공정성 간 상관은 비장애 형제자매 집단(r=.66~.73, p<.001)이 일반 형제자매 집단(r=.46~.56, p<.00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모화 하위요인과 거부민감성 간 관계의 경우,

www.kci.go.kr

표 2. 주요 변수 상관 및 기술통계

구 분	전체 집단 (*N*=279)				
	1	2	3	4	5
1. 도구적 돌봄	1				
2. 정서적 돌봄	.64***	1			
3. 불공정성	.62***	.62***	1		
4. 거부민감성	.11	.15*	.28***	1	
5. 우울	.12*	.09	.31***	.51***	1
평균	1.92	1.98	1.72	5.59	0.53
표준편차	0.43	0.48	0.46	2.81	0.24
왜도	0.28	0.58	0.71	1.07	0.47
첨도	-0.69	-0.27	0.04	1.11	-0.49

구 분		일반 형제자매 집단 (*N*=149)						
		1	2	3	4	5	평균	표준편차
비장애 형제자매 집단 (*N*=130)	1. 도구적 돌봄	-	.56***	.51***	-.07	-.06	1.79	0.40
	2. 정서적 돌봄	.67***	-	.46***	-.08	-.04	1.88	0.43
	3. 불공정성	.66***	.73***	-	.17*	.21*	1.61	0.43
	4. 거부민감성	.23**	.31***	.34***	-	.46***	5.26	2.67
	5. 우울	.25**	.17	.39***	.54***	-	0.51	0.22
	평균	2.08	2.09	1.85	5.96	0.55	-	-
	표준편차	0.41	0.51	0.46	2.94	0.26	-	-

주. 대각선 위는 일반 형제자매 집단, 대각선 아래는 비장애 형제자매 집단.
*p<.05, **p<.01, ***p<.001

비장애 형제자매 집단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r=.23～.34, p<.01), 일반 형제자매 집단은 불공정성과의 상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r=.17, p<.05). 부모화 하위요인과 우울 간 상관의 경우, 비장애 형제자매 집단은 정서적 돌봄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r=.25～.39, p<.01), 일반 형제자매 집단은 불공정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r=.21, p<.05). 거부민감성과 우울 간 상관은 두 집단 모두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r=.46～.51, p<.001)을 보였다. 평균의 경우, 부모화의 세 요인은 비장애 형제자매 집단이 1.85～2.09, 일반 형제자매 집단이 1.61～1.88로 비장

www.kci.go.kr

애 형제자매의 평균이 다소 높았다. 거부민감성은 비장애 형제자매 집단이 5.96(표준편차 2.94), 일반 형제자매 집단이 5.26(표준편차 2.67)이었고, 우울은 비장애 형제자매 집단이 0.55(표준편차 0.26), 일반 형제자매 집단이 0.51(표준편차 0.22)로, 모두 비장애 형제자매 집단의 평균이 다소 높았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부모화 유형 분류

연구문제 1을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을 실시했다(표 3). 잠재프로파일의 수(k)를 2개에서 5개로 증가시키면서 적합도 지수를 비교했으며 일치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선, AIC, SSABIC는 k=5를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집단 소속 비율이 0.7%(n=2)에 불과한 프로파일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대상을 효율적으로 요약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LPA의 선행연구에서는 집단 소속 비율이 5% 미만인 프로파일이 있거나 새로운 형태의 프로파일이 나타나지 않을 때, 간결성의 원칙(rule of parsimony)에 따라 최종 모형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Berlin et al., 2014). 통계적 유의성으로 적합도를 검증하는 LMR, BLRT 역시 k=5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k=5는 최종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다음으로 BIC는 k=3을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지지했으나, BIC를 제외한 나머지 적합도 지수에서는 다른 모형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아 최종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마지막으로 LMR, BLRT는 k=4를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지지했다. 이 모형은 AIC, SSABIC는 k=5에 비해, BIC는 k=3에 비해 크지만 그 차이가 근소해(그림 1) 최종 모형의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려웠으며, Entropy는 0.8로 수용 가능한 수준을 만족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분류 확률(probabilities of the most likely latent class membership by latent class)의 대각선 값을 검토한 결과, 0.8~0.9로 분류 정확도가 확보된 것을 알 수 있었다(Pastor, Barron, Miller & Davis, 2007).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k=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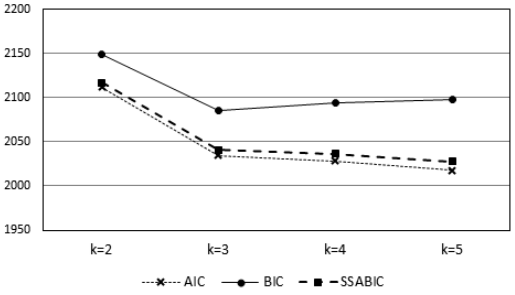

그림 1. 잠재프로파일 수(k)에 따른 적합도 지수

표 3. 모형적합도 지수

잠재 프로파일 수 (k)	AIC	BIC	SSABIC	LMR	BLRT	Entropy	집단 소속 비율 (%)				
							1	2	3	4	5
2	2111.93	2148.24	2116.53	.000	.000	0.83	73.8	26.2			
3	2034.42	2085.26	2040.87	.000	.000	0.80	44.4	38.4	17.2		
4	2028.29	2093.65	2036.58	.274	.060	0.80	35.8	11.5	46.6	6.1	
5	2017.52	2097.41	2027.65	.009	.012	0.84	35.1	0.7	45.6	11.8	5.7

www.kci.go.kr

를 최종 모형으로 선정했다.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4개 잠재프로파일의 특징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 명칭을 부여했다(그림 2). 전체적으로 프로파일 모양을 살펴보면 Class 1과 3은 세 하위요인 간 차이가 미세하여 평평한 프로파일을 보였으나, Class 2와 4는 마지막 하위요인인 불공정성에서 차이가 분명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해 보면, Class 1은 100명(35.8%)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해당되었으며, 도구적 돌봄(M=0.197, SE=0.085), 정서적 돌봄(M=0.191, SE=0.076), 불공정성(M=0.275, SE=0.115) 모두 Z점수가 0.2 안팎의 범위였다(표 4). Z점수의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임을 고려하면 이들의 부모화 수준은 중간인 것으로 볼 수 있어, Class 1은 “중-부모화”로 명명했다. Class 3은 130명(46.6%)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해당되었으며, 도구적 돌봄(M=-0.719, SE=0.079), 정서적 돌봄(M=-0.727, SE=0.073), 불공정성(M=-0.731, SE=0.052) 모두 -0.7 안팎의 범위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Class 3은 “저-부모화”로 명명했다.

Class 1, 3과 비교해 볼 때, Class 2와 4는 부모화의 세 하위요인 모두에서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에 Class 2와 4는 고-부모화 집단으로 함께 분류하되, 그 특징을 반영하여 세부유형을 구분하였다. 우선, Class 2의 경우 32명(11.5%)이 해당되었으며, 도구적 돌봄(M=1.318, SE=0.122)과 정서적 돌봄(M=1.419, SE=0.209)을 불공정성(M=0.819, SE=0.243)보다 다소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특히, 도구적 돌봄과 정서적 돌봄의 Z점수가 1.0 이상으로 두드러지게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즉, Class 2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가족들에게 도구적, 정서적 돌봄을 많이 제공한다고 인식하지만, 이 상황이 심각하게 불공정하다고는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Class 2는 “고-부모화 I : 도구-정서형”으로 명명했다. 한편 Class 4는 17명(6.1%)으로 가장 적은 인원이 해당되었으며, 도구적 돌봄(M=1.674, 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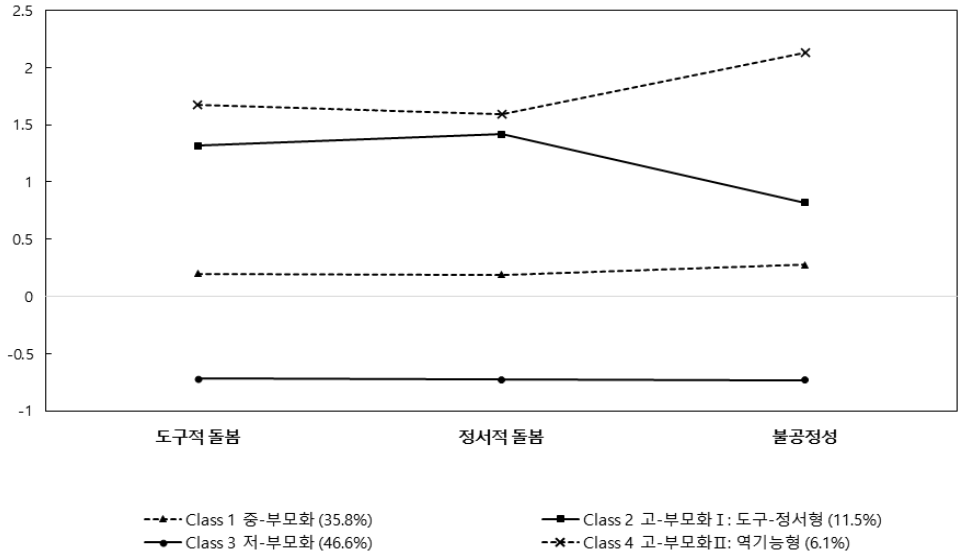

그림 2.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따른 부모화 유형

www.kci.go.kr

표 4. 집단 별 잠재평균 추정치 및 차이 검증

구분	중-부모화[1] (*N*=100)		고-부모화Ⅰ: 도구-정서형[2] (*N*=32)		저-부모화[3] (*N*=130)		고-부모화Ⅱ: 역기능형[4] (*N*=17)		F/Welch 통계량 (사후검정)
	M	*SE*	*M*	*SE*	*M*	*SE*	*M*	*SE*	
도구적 돌봄	0.197	0.085	1.318	0.122	-0.719	0.079	1.674	0.084	260.59*** (3 < 1 < 2,4)
정서적 돌봄	0.191	0.076	1.419	0.209	-0.727	0.073	1.593	0.317	192.70*** (3 < 1 < 2,4)
불공정성	0.275	0.115	0.819	0.243	-0.731	0.052	2.130	0.275	341.11*** (3 < 1 < 2 < 4)

주. *M*=평균, *SE*=표준오차. 1=Class 1, 2=Class 2, 3=Class 3, 4=Class 4. 사후검정: Scheffe.
***p<.001

0.084)과 정서적 돌봄(*M*=1.593, *SE*=0.317)보다는 불공정성(*M*=2.130, *SE*=0.275)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도구적, 정서적 돌봄의 Z점수도 1.5 이상으로 높았으나, 불공정성의 Z점수가 2.0 이상으로 두드러지게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Class 4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가족들에게 도구적, 정서적 돌봄을 많이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느낀다. 이는 부모화의 단점이 부각되는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어, Class 4를 "고-부모화Ⅱ: 역기능형"으로 명명했다.

아울러, 4개 집단 간 프로파일 구성요인(도구적 돌봄, 정서적 돌봄, 불공정성)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모든 구성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표 4). Scheffe 사후검정 결과에 따르면 도구적 돌봄과 정서적 돌봄은 "저-부모화"의 평균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중-부모화"였고, "고-부모화Ⅰ: 도구-정서형", "고-부모화Ⅱ: 역기능형"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고-부모화Ⅰ: 도구-정서형"과 "고-부모화Ⅱ: 역기능형" 간 차이는 없었다. 한편, 불공정성은 "저-부모화"의 평균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중-부모화", "고-부모화Ⅰ: 도구-정서형" 순서였고, "고-부모화Ⅱ: 역기능형"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형제자매의 장애 여부에 따른 부모화 유형 분포

연구문제 2를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형제자매의 장애 여부에 따른 부모화 유형 분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3, N=279)=20.95$, p<.001.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부모화Ⅰ: 도구-정서형"과 "고-부모화Ⅱ: 역기능형"에는 비장애 형제자매 집단의 비율이 각각 18.5%(일반 형제자매 5.4%), 9.2%(일반 형제자매 3.3%)로 높은 반면, "저-부모화"에는 일반 형제자매 집단의 비율이 56.4%(비장애 형제자매 35.4%)로 높았다.

www.kci.go.kr

표 5. 형제자매의 장애 여부에 따른 부모화 유형 분포

구 분	중-부모화 (*N*=100)	고-부모화Ⅰ: 도구-정서형 (*N*=32)	저-부모화 (*N*=130)	고-부모화Ⅱ: 역기능형 (*N*=17)	χ^2
비장애 형제자매 (*N*=130)	48 (36.9%)	24 (18.5%)	46 (35.4%)	12 (9.2%)	20.95***
일반 형제자매 (*N*=149)	52 (34.9%)	8 (5.4%)	84 (56.4%)	5 (3.3%)	

주. ***p<.001

형제자매의 장애 여부와 부모화 유형이 거부민감성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3을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표 6). 분석결과, 거부민감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형제자매 장애 여부와 부모화 유형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F(7, 271)=5.73$, p<.001. 부분 에타 제곱(η^2)은 0.129로 이 모형은 거부민감성 변량의 12.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제자매의 장애 여부와 부모화 유형 각각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주효과 및 상호작용 항의 부분 에타 제곱(η^2)은 .05 이하로 효과크기는 작은 편이었다. 즉, 표 2에서 확인했던 비장애 형제자매 집단과(M=5.96, SD=2.94) 일반 형제자매

표 6. 거부민감성 및 우울에 대한 형제자매의 장애 여부와 부모화 유형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구분	비장애 형제자매		일반 형제자매		전체		이원분산분석			
	M	*SD*	*M*	*SD*	*M*	*SD*	효과	*F*	*df*	η2
거부민감성										
Class 1 중-부모화	4.69	1.66	5.22	2.44	4.96	2.11	집단	8.50**	1	.03
Class 2 고-부모화Ⅰ: 도구-정서형	7.74	4.20	4.27	1.97	6.87	4.03	유형	4.01**	3	.04
Class 3 저-부모화	5.69	2.50	5.33	2.86	5.46	2.73	집단×유형	4.30**	3	.05
Class 4 고-부모화Ⅱ: 역기능형	8.53	2.34	6.23	2.82	7.85	2.63				
우울										
Class 1 중-부모화	0.49	0.24	0.55	0.25	0.53	0.25	집단	8.35**	1	.03
Class 2 고-부모화Ⅰ: 도구-정서형	0.63	0.24	0.44	0.18	0.59	0.24	유형	1.37	3	.01
Class 3 저-부모화	0.50	0.26	0.49	0.21	0.49	0.23	집단×유형	4.44**	3	.05
Class 4 고-부모화Ⅱ: 역기능형	0.79	0.10	0.44	0.10	0.69	0.19				

주. N=279. 집단=형제자매의 장애 여부(비장애 형제자매 집단, 일반 형제자매 집단), 유형=부모화 유형(저-부모화, 중-부모화, 고-부모화Ⅰ: 도구-정서형, 고-부모화Ⅱ: 역기능형)

**p<.001.

www.kci.go.kr

집단의(M=5.26, SD=2.67) 거부민감성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F(1, 271)=8.50, p<.01, 부모화의 4개 유형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다, F(3, 271)=4.01, p<.01. 그리고 부모화 유형 별 거부민감성 수준은 형제자매의 장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F(3, 271)=4.30, p<.01.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3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3의 거부민감성 도표를 보면 "고-부모화Ⅰ: 도구-정서형"에서 형제자매의 장애 여부에 따른 평균 차이가 특히 명확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고-부모화Ⅰ: 도구-정서형"의 비장애 형제자매 집단은 비교적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M=7.74, SD=4.20), 일반 형제자매 집단은 낮은 편으로(M=4.27, SD=1.97) 그 차이는 3.47점이었고 Bonferroni 사후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1). 이는 같은 "고-부모화Ⅰ: 도구-정서형"이라도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를 둔 청소년들(비장애인 형제자매 집단)의 거부민감성이 장애가 없는 형제자매를 둔 청소년들(일반 형제자매 집단)에 비해 높음을 뜻한다. "고-부모화Ⅱ: 역기능형"에서 역시 비장애 형제자매(M=8.53, SD=2.34)와 일반 형제자매(M=6.23, SD=2.82) 간 평균 차이가 컸으나 Bonferroni 사후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이는 "고-부모화Ⅱ: 역기능형"의 경우 형제자매의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거부민감성을 지님을 뜻한다.

우울 역시 전체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F(7, 271)=5.73, p<.001, 부분 에타 제곱(η^2)은 0.090으로 이 모형은 우울 변량의 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효과 가운데 형제자매의 장애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부모화 유형은 유의하지 않았고,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했다. 주효과 및 상호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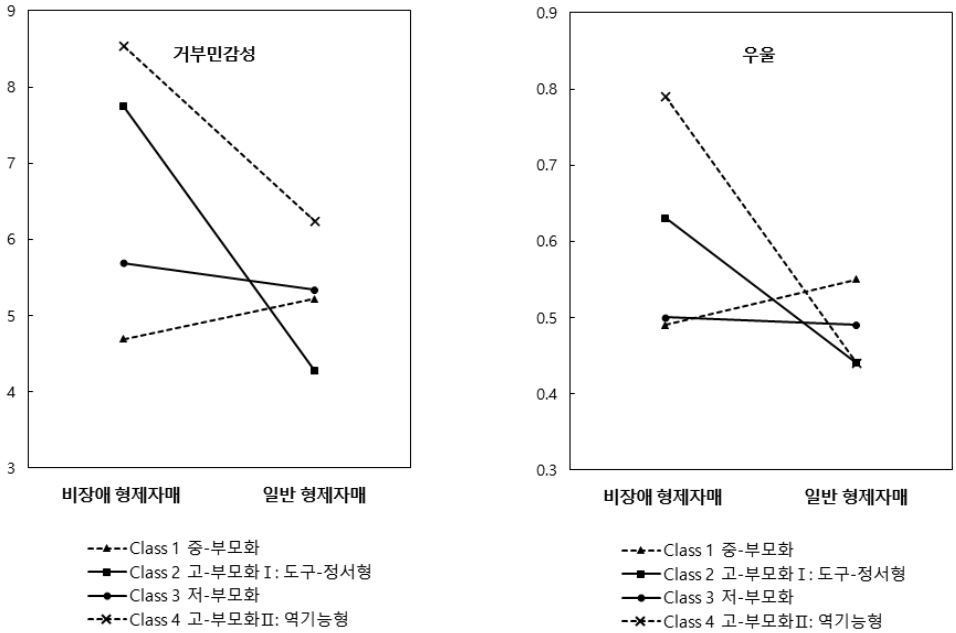

그림 3. 거부민감성과 우울 수준에 대한 형제자매의 장애 여부와 부모화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www.kci.go.kr

용 항의 부분 에타 제곱(η^2)은 .05 이하로 효과크기는 작은 편이었다. 즉, 표 2에서 확인했던 비장애 형제자매 집단과(M=0.55, SD=0.26) 일반 형제자매 집단의(M=0.51, SD=0.22) 우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F(1, 271)=8.35, p<.01, 부모화의 4개 유형 간에는 차이가 없다, F(3, 271)=1.37, p>.05. 그리고 부모화 유형 별 우울 수준은 형제자매의 장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F(3, 271)=4.44, p<.01.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3의 우울 도표를 확인하면, "고-부모화Ⅰ: 도구-정서형"과 "고-부모화Ⅱ: 역기능형"에서 형제자매의 장애 여부에 따른 우울 차이가 특히 분명했다(그림 3). "고-부모화 집단Ⅰ: 도구-정서형"의 비장애 형제자매 집단은 비교적 높은 평균(M=0.63, SD=0.24)을 보인 반면, 일반 형제자매 집단은 낮은 편으로(M=0.44, SD=0.18) 그 차이는 0.19점이었고 Bonferroni 사후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5). 또한, "고-부모화Ⅱ: 역기능형"의 비장애 형제자매 집단의 평균은 매우 높았으나(M=0.79, SD=0.10), 일반 형제자매 집단은 낮은 편으로(M=0.44, SD=0.10) 그 차이는 0.35점이었고 Bonferroni 사후검정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1). 이는 같은 고-부모화 집단이라도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를 둔 청소년들(비장애인 형제자매 집단)의 우울이 장애가 없는 형제자매를 둔 청소년들(일반 형제자매 집단)에 비해 높음을 뜻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부모화 유형을 분류하고, 형제자매의 장애 여부에 따라 부모화 유형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형제자매의 장애 여부와 부모화 유형이 거부민감성과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1) 저-부모화, (2) 중-부모화, (3) 고-부모화Ⅰ: 도구-정서형, (4) 고-부모화Ⅱ: 역기능형의 4개 잠재프로파일이 도출되었고, 부모화의 네 유형은 형제자매의 장애 여부에 따라 다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제자매의 장애 여부와 부모화 유형은 거부민감성과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화 유형의 특징과 형제자매의 장애 여부와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화 유형은 부모화의 정도에 따라 크게 고, 중, 저로 묶을 수 있었는데, 이는 부모화 유형을 파괴적 부모화, 적응적 부모화, 비부모화로 구분했던 Jurkovic(1997)의 분류와 유사성을 지닌다. Jurkovic(1997)은 도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화는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을 기준으로 부모화 유형을 구분하기보다는 불공정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모든 잠재프로파일의 도구적 돌봄과 정서적 돌봄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저-부모화나 중-부모화에서는 불공정성에 따른 세부 유형이 나타나지 않았고, 고-부모화로 분류된 2개 집단에서만 프로파일 양상이 차별적으로 나타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세부 유형이 분류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부모화에서 불공정성 요인이 역기능적인 부모화 유형의 중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 선행연구들과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결과이다(강선모, 2013; Jurkovic, 1997).

그리고 부모화 유형은 비장애 형제자매 집

www.kci.go.kr

단과 일반 형제자매 집단에서 다르게 분포했다. 일반 형제자매는 중-부모화가 34.9%, 저-부모화가 56.4%로 도합 90% 이상이 부모화가 되지 않았거나 적응적인 부모화 상태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비장애 형제자매의 경우 중-부모화의 비율은 36.9%로 일반 형제자매와 유사했으나, 저-부모화는 35.4%로 두 유형의 합이 일반 형제자매에 비해 20% p 가량 낮았다. 또한, 비장애 형제자매 집단에서 “고-부모화Ⅰ: 도구-정서형”과 “고-부모화Ⅱ: 역기능형”의 비율은 일반 형제자매에 비해 높았다. 이는 비장애 형제자매가 높은 수준의 부모화를 경험하기 쉽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손주희, 박주희, 2019; 안다혜, 정주리, 2021; Stoneman et al., 1988). 장애인을 형제, 자매로 둔 청소년은 비장애인을 형제, 자매로 둔 청소년에 비해 가족 구성원을 돌보도록 명시적, 암묵적으로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김민정, 2010), 심리적인 안전감을 추구하기 위해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다(조은영, 정태연, 2005). 이는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가치관과도 관련될 수 있는데, 정태연, 최상진, 김효창(2002)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부모-자녀 간 관계가 정서적으로 강하게 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비장애 형제자매는 과도한 요구라도 거절하지 못하고 감당하면서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전전긍긍하거나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애어른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김다혜, 한재희, 2016). 동시에 장애 형제자매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함에 서운하고, 이러한 마음을 나눌 곳이 없어 외로운 감정을 느끼면서,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 또한 높아질 수 있다(양호정, 2014). 고-부모화 유형에 비장애 형제자매 비율이 높았던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심리적 역동과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비장애 형제자매는 부모화를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 특히 역기능적이거나 파괴적인 유형의 부모화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부모화 유형 결과는 물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화가 구분되어 유형화되었던 선행연구들(송현지, 이소연, 2020; 이혜영, 최연실, 2016)과 달랐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분석 방법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사용한 반면, 선행연구들(송현지, 이소연, 2020; 이혜영, 최연실, 2016)은 K-평균 군집분석을 사용했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엄격한 통계적 검증 절차를 통해 집단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K-평균 군집분석의 대안으로 주목받아왔다(Berlin et al., 2014). 본 연구는 보다 정밀한 통계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간과된 측면을 밝힐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 형제자매의 부모화 유형 데이터의 잠재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 반복 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형제자매의 장애 여부와 부모화 유형은 거부민감성과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비장애 형제자매의 “고-부모화Ⅰ: 도구-정서형”은 일반 형제자매 집단과 달리 거부민감성 평균이 높았다. 이는 부모화 수준이 동일하게 높다 해도, 장애인을 형제, 자매로 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거부민감성에 취약할 수 있음을 뜻한다. 거부민감성이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고 불안해하는 경향성으로, 거부민감성이 높은

www.kci.go.kr

개인은 사소한 단서에서도 거절의 뉘앙스를 발견하고 과민하게 반응한다(Ayduk et al., 2009). 애착이론에서는 생애 초기 양육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거부되었던 경험이 일종의 방어기제를 형성하여, 거절 단서에 민감하도록 만든다고 설명한다(Downey et al., 2004). 이와 관련하여 설경옥과 김유나(2018)는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이 거부민감성을 높임을 밝힌 바 있다. 부모의 차별 정도가 심할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아졌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선호되는 자녀와 차별되는 자녀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비장애 형제자매 역시 부모의 차별적 양육으로 인해 거부민감성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장애 자녀의 요구는 비장애 자녀의 요구에 비해 우선시 된다(김다혜, 한재희, 2016). 이에 더해 부모는 장애인 자녀에 대한 보상심리로 비장애 자녀에게 완벽함이나 높은 성취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부담감을 주기도 한다(이영미, 2016).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차별적인 양육행동으로 나타나 비장애 형제자매의 거부민감성과 우울을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은 비장애 자녀의 내재화 문제(위축행동, 신체증상, 우울)와 정적인 관련을 지녔던 이선영, 임지영(2014)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장애 형제자매들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상적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김다혜, 한재희(2016)의 연구와도 관련된다. 다만, 본 연구에 따르면 모든 비장애 형제자매들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아니며, 장애 형제자매가 없더라도 과도하고 역기능적인 유형의 부모화를 경험하는 경우 이러한 경향성이 강해질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셋째, 형제자매의 장애 여부와 부모화 유형은 우울과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비장애 형제자매의 “고-부모화Ⅰ: 도구-정서형”과 “고-부모화Ⅱ: 역기능형”은 일반 형제자매와 달리 우울 평균이 높았으며, 특히 비장애 형제자매의 “고-부모화Ⅱ: 역기능형”은 두드러지게 높은 우울을 보였다. 이는 역기능적이고 파괴적인 부모화가 우울의 위험요인이며, 그 영향력은 일반 형제자매보다 비장애 형제자매에게서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임을 시사한다. 부모화 경험이 우울을 높인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일관적으로 제시되어 왔지만(신말숙, 심혜원, 2017), 비장애 형제자매가 우울에 보다 취약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적다.

그 원인에 대해 추론해 보면, 우선 비장애 형제자매는 장애형제와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수민과 한경임(2020)은 비장애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 이들이 장애 형제자매의 문제행동, 그로 인한 가족 간 불화 등으로 “갈등의 일상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장애형제 관련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안다혜, 정주리, 2021), 나아가 우울을 높일 수 있다(이지연, 2012). 또한, 비장애 형제자매는 장애 형제자매의 몫까지 해내야 한다는 부모의 기대와 요구 속에서 자기 불일치를 경험할 수 있다. Higgins(1987)에 따르면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 불일치는 자기 개념에 혼란을 가져오는데, 이는 자기상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하고 자기의 부정적 측면을 반추하도록 만들어 우울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임진, 김은정, 2012). 즉, 부정적인 방향으로 부모화된 비장

www.kci.go.kr

애 형제자매는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자아상을 형성함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정서적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공인원, 홍혜영, 2015; 최명선, 강지희, 2008).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구를 억압하다보니 심리적인 어려움이 적시에 다루어지지 못하고 누적되다가 우울감으로 드러난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장애 형제자매의 심리, 정서적 지원을 위한 함의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화의 유형 중 적응적이고 건강한 부모화 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비장애 형제자매는 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일정 정도 부모화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가능한 한 긍정적인 형태의 부모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적응적인 유형의 부모화는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과업을 부여했을 때 가능하다(Walsh, Shulman, Bar-On & Tsur, 2006). 아동기에는 자기 방 치우기, 쌀 씻기 등 간단한 집안일을 맡길 수 있으며, 청소년기에는 돌봄 노동을 포함한 집안일의 목록을 작성하여 각자가 어떤 과업을 맡을지 함께 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이처럼 한정된 범위에서 부모 역할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되, 자녀가 수행한 과업에 대해 인정과 지지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는 소속감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고, 협업의 가치, 노동의 의미 등을 배울 수 있다. 이와 같은 적응적 부모화는 아동, 청소년의 자아통합을 높이고(문은미, 최명선, 2008), 자기효능감(Barnett & Parker, 1998) 및 자존감 향상(Walker & Lee, 1998)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심리교육을 실시하여, 부모화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응적인 부모화 형성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안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편의표집에 의해 연구대상을 모집했기 때문에, 지역이 수도권 및 경남 지역으로 한정되었다.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성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참가자를 모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형제자매 관계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아동 중기를 포함하지 못했다. 아동중기 및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장애 형제자매의 부모화 유형 및 심리적 양상에 주목해 본다면, 시기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모형의 설명량은 거부민감성과 우울 모두에서 다소 낮은 편이었다. 이는 비장애 형제자매 유무와 부모화 유형이 거부민감성이나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제 3의 변인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매개변인을 포함함으로써 비장애 형제자매의 거부민감성 및 우울이 유발되는 메커니즘을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선모 (2013). 부모화와 안녕감의 구조관계분석: 수치심,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6), 3409-3431.

www.kci.go.kr

강선모, 임혜경 (2012). 대학생의 과보호 및 부모화 경험이 내현적 자기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4), 53-78.

공인원, 홍혜영 (2015). 대학생의 부모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불일치와 수치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2), 21-47.

구경호, 유순화 (2012).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의 관계. 상담학연구, 13(6), 2763-2776.

김나연 (2021). 초기 성인 커플의 부모화가 거부민감성과 강박적 돌봄을 매개로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 검증.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다혜, 한재희 (2016). 지적장애형제를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심리적 현상. 상담학연구, 17(5), 357-375.

김민정 (2010). 장애형제가 있는 비장애형제가 경험하는 적응의 심리적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현대사회과학연구, 13, 37-60.

김병건, 김현아 (2020). 중국 조선족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화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8(2), 185-205.

김은경, 양재원, 정유숙, 홍성도, 김지혜 (2005). 아동 및 청소년에서 소아 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의 요인 구조. 한국심리학회: 임상, 24(3), 693-707.

김은영 (2009). 청소년의 부모화경험과 자기개념 및 수치심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은미, 최명선 (2008).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063-1085.

박지윤 (2004). 아동용 거절 민감성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춘엽, 하문선 (2020). 초기 청소년기 부모애착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거절민감성과 사회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8(3), 651-680.

석말숙 (2013). 장애인가족과 비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 연구: McMaster Model의 적용. 한국가족복지학, 18(2), 105-131.

설경옥, 김유나 (2018). 형제가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1), 91-110.

손주희, 박주희 (2019). 성인초기 비장애형제자매의 부모화 경험이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과 거부민감성의 조절효과. *Family and Environmental Research,* 57(3), 445-457.

송현지, 이소연 (2020). 청소년의 부모화 군집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우울 증상, 안녕감의 차이. 청소년상담연구, 28(1), 339-365.

신말숙, 심혜원 (2017). 부모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상담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6(1), 61-80.

안다혜, 정주리 (2021). 성인 비장애형제자매의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형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2), 725-743.

양호정 (2014). 장애형제와 함께 성장한 여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수경, 장숙 (2012). 성인 지적장애인의 미래

www.kci.go.kr

에 대한 가족과 전문가들의 주관적 인식 유형. 재활복지, 16, 29-55.

이선영, 임지영 (2014).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2), 63-84.

이영미 (2016). 장애 형제자매가 있는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모화의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50(4), 327-346.

이정숙, 김은경 (2007).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수치심과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39-356.

이지선, 김정민 (2019).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부모화 경험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비교: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0(4), 39-56.

이지연 (2012). 장애형제관련 스트레스가 비장애형제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21(1), 63-76.

이혜영, 최연실 (2016). 대학생의 부모화 유형에 따른 관계적 자기 인식. 가족과 문화, 28(1), 314-342.

임진, 김은정 (2012). 청소년의 실제-이상 자기 불일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반추적 반응 양식을 매개 변인으로. 청소년학연구, 19(1), 279-306.

장진이, 곽노은, 이지연 (2016). 청소년의 우울과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정서조절, 거부민감성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8(1), 285-304.

정수인, 오인수 (2014). 신체장애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비장애자녀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애와 부모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5(2), 887-901.

정은숙 (2021). 부모와 또래 애착이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2), 141-166.

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성격적 관계적 및 과업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51-76.

조민경, 강영심, 손성화 (2019). 발달장애를 지난 형제자매의 유무에 따른 비장애 중학생의 심리적 특성. 통합교육연구, 14(2), 151-170.

조수민, 한경임 (2020). 장애 형제자매가 있는 성인 비장애 형제자매의 삶의 경험. 특수아동교육연구, 22(4), 165-191.

조은영, 정태연 (2005). 부모화된 자녀의 개인적 및 가족관계적 특성: 자기보고 및 상담을 통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33-853.

최명선, 강지희 (2008). 청소년의 아동기 부모화 경험이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1(1), 43-53.

Akaike, H. (1987). Factor analysis and AIC. *Psychometrika, 52*, 317-332.

Ayduk, O., Gyurak, A., & Luerssen, A. (2009). Rejection sensitivity moderates the impact of rejection on self-concept clar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 1467-1478.

Barnett, B., & Parker, G. (1998). The parentified child: Early competence or childhood

www.kci.go.kr

deprivation?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Review, 3*(4), 146-155.

Berlin, K. S., Williams, N. A., & Parra, G. R. (2014).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part1): Overview and cross-sectional latent class and latent profile analysi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9*(2), 174-187.

Boszormenyi-Nagy, I., & Spark, G. (1973). *Invisible loyalties: Reciprocity in inter generational family therapy*. NY: Harper & Row.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Downey, G., Mougios, V., Ayduk, Ö., London, B. E., & Shoda, Y. (2004).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defensive motivational system: Insights from the startle response to rejection cues. *Psychological Science, 15*(10), 668-673.

Edward Teyber. (2006). 이혼가정자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성정현 역). 서울: 청목출판사. (원전은 2001년에 출판).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Jurkovic, G. J. (1997). *Lost childhoods: The plight of the parentified child.* New York: Brunner/Mazel.

Jurkovic, G. J. (1998). Destructive parentification in families: Causes and consequences. In L. L'Abate (Ed.), *Family psychopathology: The relational roots of dysfunctional behavior* (pp. 237-255). New York: Guilford Press.

Jurkovic, G. J., Kuperminc, G. P., & Casey, S. (2000). *Filial Responsibility Scale-Youth*. Department of psychology, Georgia State University.

Jurkovic, G. J., Kuperminc, G. P., Perilla, J., Murphy, A. D., Ibanez, G., & Casey, S. (2004). The role of filial responsibility and cultural ecological processes in school and social adjustment of immigrant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5*, 81-104.

Korczak, D. J., & Goldstein, B. I. (2009). Childhood onset major depressive disorder: Course of illness and psychiatric comorbidity in a community sample. *The Journal of Pediatrics, 155*, 118-123.

Kovacs, M. (1985).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Psychopharmacology Bulletin, 21*, 955-988.

Lanza, S. T., Collins, L. M., Lemmon, D., & Schafer, J. L. (2007). PROC LCA: A SAS procedure for latent class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671-694.

Lo, Y., Mendell, N., & Rubin, D.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 767-778.

Marquis, S., McGrail, K., & Hayes, V. (2019). A population-level study of the mental health of siblings of children who have a developmental disability. *SSM-Population Health, 8* (온라인 출판).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352827318303641

McLachlan, G., & Peel, D. (2000). *Finite mixture models.* New York: John Wiley.

Muthén, B. O.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In D. Kaplan (Ed.), *Handbook of quantitative*

www.kci.go.kr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 (pp. 345-368). Thousand Oaks, CA: Sage.

Pastor, D. A., Barron, K. E., Miller, B. J., & Davis, S. L. (2007).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2*(1), 8-47.

Pietrzak, J., Downey, G., & Ayduk, O. (2005). Rejection sensitivity as a interpersonal vulnerability. In M. W. Baldwin, *Interpersonal Cognition*. (pp. 62-84) New York: Guilford Press.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Annals of Statistics, 6*, 461-464.

Sclove,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 333-343.

Stoneman, Z., Brody, G. H., Davis, C. H., & Crapps, J. M. (1988). Child care responsibilities, peer relations, and sibling conflict: Older siblings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3*(1), 174-183.

Walker, J. P., & Lee, R. E. (1998). Uncovering strengths of children of alcoholic paren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0*(4), 521-533.

Walsh, S., Shulman, S., Bar-On, Z., & Tsur, A. (2006). The role of parentification and family climate in adaptation among immigrants in Israel.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6*(2), 321-350.

Wang, J., & Wang, X.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cations using Mplus*. West Sussex, UK: Higher Education Press.

Wells, M., & Jones, R. (1998). Relationship among childhood parentification, splitting, and dissociation: Preliminary finding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4), 331-339.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원 고 접 수 일 : 2021. 08. 23
수정원고접수일 : 2021. 10. 25
게 재 결 정 일 : 2021. 11. 08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1, Vol. 33, No. 4, 1715-1737

Relations between Parentification Types,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on: Comparison of Adolescents with Siblings Disability

Hyunju Choi

University of Ulsan / Associate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ypes of parentification based on latent profile analysis (LPA)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distribution of parentification types based on adolescent sibling groups.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ose with siblings with disability (SW/) and those with siblings without disability (SW/O). This study also aimed to verify whether the types of parentification and sibling groups influenced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on. Data from 130 SW/ adolescents and 149 SW/O adolescents were collected. The results of LPA suggested that a 4-type solution was the best fit for the data: low-parentification, medium-parentification, high-parentification Ⅰ: instrumental-emotional type, high-parentification Ⅱ: dysfunctional type. Moreover, the distribution of types of parentification of SW/ differed from that of SW/O. Lastly, the interaction effects of types of parentification and sibling groups on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support for SW/ adolescents were discussed.

Key words : sibling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y, parentification, rejection sensitivity, depression, LPA

www.kci.go.kr